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1권 제4호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2015 Vol. 11. No. 4. pp. 39-61
http://dx.doi.org/10.14698/jkcce.2015.11.4.039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이하정* 탁정화**

Impact of Children's Self-esteem and Happiness on Their Resilience

Lee, Hajeong Tak, Jeong Hwa

본 연구는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유아교육기관에 재원하고 있는 만 5세 유아 200명이었다. 자료수집은 자아존중감, 행복감, 회복탄력성 검사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문제에 따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와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행복감과 회복탄력성은 보통보다 높은 수준의 인식정도를 보였다.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행복감과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순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하위요소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주제어 : 자아존중감, 행복감, 회복탄력성, 유아

* 주저자: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BK21 플러스 연수연구원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BK21 플러스 연구원(E-mail : happytak@hanmail.net)

Ⅰ. 서 론

현대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현재의 아이들은 부모 세대가 지내왔던 생활과는 또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하여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아이들은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장·단기적 목표를 지속적으로 세우고, 무수한 좌절과 시련을 경험할 것이며,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Pleux, 2012). 현재 유아들은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입소 시기의 하향화, 아동 학대, 조기 사교육의 노출로 인해 과거에 비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김규수, 2002; 백혜정, 김현신, 우남희, 2005; 홍은자, 2001). 이는 유아기부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갈등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스스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탄력성을 가져야 함과 동시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아이들에게 변화에 대응하는 강한 자신감, 좌절과 시련을 극복하는 힘, 변화를 받아들이는 특별한 능력을 요구한다. Pleux(2012)는 아이들이 시련을 극복하는 힘을 회복탄력성(resilience)으로 정의하였고, 김소연(2013)은 회복탄력성이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을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인간의 총체적 능력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회복탄력성은 넓은 의미로는 외적·내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응과정에 필요한 힘을, 좁은 의미로는 개인의 감정차원을 조절하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Block & Kremen, 1986). 또한 김주환(2011)은 인생의 역경을 극복할 잠재적인 힘을 회복탄력성이라고 명명하며 스트레스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대응기제로써 작용을 하는 회복탄력성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밝혔다. 즉, 회복탄력성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부터 교육학과 심리학에 등장한 회복탄력성의 개념은 최근 들어 관련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Pleux, 2012). 초기에는 장애, 가난, 아동학대, 부모의 이혼 및 정신질환, 재해, 전쟁 등의 경험을 한 고위험집단에만 한정되었으나, 점차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으며(이지현, 2012), 특별하고 희귀한 능력이라기보다 인간의 기본적인 적응 체계가 작동하면서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발달과정이라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Master & Powell, 2003). 특히 유아기가 회복탄력성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유아기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관련연구도 증가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관련 연구로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강남욱, 김정희, 2012; 김경희, 주현주, 2013)과 만5세 유아(이연희, 2013; 이지현, 2012)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유아기는 부모라는 안전기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직면하고 극복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유아기에 경험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은 개인의 고유한 행동양식을 결정하는데 기반이 되므로 유아의 회복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수행된 유아의 회복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아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의 회복탄력성은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가 인적자원으로서 유아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데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강남욱, 김장희, 2012; 이지현, 2012), 유아가

일상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현실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강남옥, 김장희, 2012; 이연희, 정재은, 2012) 유아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을 구성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회복탄력성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권수현, 2011; 김정희, 이용주, 김동춘, 2014; 이연희, 정재은, 2012)가 주로 수행되었으며, 유아는 주위의 부모, 교사, 또래 관계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고난과 역경 상황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특성이 있는 것(심은경, 문혜련, 2013; 이연희, 정재은, 2012)으로 밝혀졌다.

회복탄력성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을 통하여 길러질 수 있지만(Schwarzer & Nina, 2007)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작동할 때는 회복탄력성의 증가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질 뿐이다. 하지만 유아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는 주체가 될 때 내적동기는 강화되며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음에 기반해 볼 때(김아영, 2014; 김정희, 이용주, 김동춘, 2014; Zimmerman & Schunk, 2011) 유아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는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적인 변인과의 관련성 속에서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아기에 형성된 회복탄력성은 유아기 이후에 경험할 학업스트레스를 성공적으로 대처함에 있어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기점검의 기회, 동기부여, 책임의식이 기반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아의 내적 심리변인에 대한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유아기에 길러주어야 할 긍정심리자원이 무엇인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의 외부적 환경 변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소극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 내적통제소재에 기반한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라는 두 가지 심리적 변인에 주목하여 유아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회복탄력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중의 하나인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능력으로,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역할에 관심을 가진 Haltiwanger(1989)는 자아존중감은 자신감 형성에 초석이 되고 도전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우며, 목적의식과 자신의 주장을 바탕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도전적인 행동, 독립심, 긍지,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 성취를 높이는데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곽윤정, 강민수, 이지혜, 엄채윤, 2013; Harter, 2015; Seligman, 2011). 이처럼 유아가 자신의 성취나 능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유아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내적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보육교사(황해익, 탁정화, 강현미, 2014; 탁정화, 강현미, 2014)와 청소년(김경수, 김화경, 2011)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간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능력과 강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자아존중감은 외부의 위험과 낙담하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발전시키는데 긍정적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유안진, 한미현, 1996)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유아는 문제행동의 출현빈도가 낮으며 높은 인지능력을 가지는 등 자아존중감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반해 볼 때 자아존중감이 높은 유아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거나 실패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과 한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

게 인식하고 잘하는 부분인 강점에 주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변인으로 설정하여 회복탄력성을 증진함에 있어 자아존중감의 정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심리학 분야에서 인간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는 긍정심리학의 등장은 행복, 몰입, 만족, 성취, 회복탄력성 등에 대한 연구를 증가시켰다(Pleux, 2012; Seligman, 2011). 특히,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Seligman(2009)은 회복탄력성이 부정적인 정서를 줄이고, 긍정정인 정서를 높여주는 능력으로 행복감이 생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였다. 행복과 관련한 국내 연구로는 교사와 부모와 같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문수경, 이무영, 박상희, 2009; 이영이, 노진숙, 윤영숙, 전은희, 2011; 최관경, 2003)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강영하, 2012; 김은미, 최명구, 2007; 서은국, 2012; 안도희, 이유리, 2012; 이미리, 2003; 조한익, 2012)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청소년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행복수준과 그 관련변인을 파악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환경여건 마련과 교육자원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에 다니는 유아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아가 기관 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유아기부터 행복정도를 진단하고 높이기 위한 노력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만5세는 행복에 대한 추상적 개념을 실생활과 연결시켜 행복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행복한 삶을 이끄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시기이므로(김성숙, 2013; 황해익, 김미진, 탁정화, 2012), 유아의 행복감이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의 행복감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본 연구는 행복을 종속변인으로 두어 행복감의 소극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연구패턴에서 벗어나 행복감이 유아 생활에 미치는 적극적인 측면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긍정심리학자(Lybormirsky, 2008/2012, Miller & Frisch, 2009/2015)의 연구관점을 반영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유아행복감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한 이은주(2011)는 유아행복은 쾌락적 차원이 아니라 조화로운 삶을 통하여 구현되며 개인이 가진 고유한 잠재력을 충분히 계발하고 이를 발휘하는 과정을 통하여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시각으로 행복감을 접근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의거하여 유아의 행복을 유아교육기관에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정의하고 생활만족, 몰입, 건강, 영성, 또래관계, 교사관계, 인지 및 성취, 정서, 부모관계의 요인으로 유아행복이 구성된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행복감을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조화로운 삶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의 생활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행복감을 비롯하여 회복탄력성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의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한 행복감과 관련한 연구는 연구 자체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신지혜, 최혜순, 2014).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회복탄력성과 유사한 자아탄력성이 행복감과 관계가 있다고 밝힌 연구(강영하, 2012)가 있어 유아에게 있어서도 행복감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할 수 있으나 실제적인 관련성을 알아볼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다.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행복감과 회복탄력성과의 정적 상관성을 밝힌 연구(탁정화, 2015; 탁정화, 강현미, 2014; 황해익, 탁정화, 홍성희, 2013)도 수행되기는 하였으나 유아교사라는 직무관련과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유아기에도 보편적으로

관련 변인과의 연관성이 나타날지 증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손해진, 2013; 최주애, 2012; 최현미, 2013; 최현미, 신동주, 2012), 행복과 회복탄력성에 있어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자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신지혜, 최혜순, 2014). 특히, 유아기부터 회복탄력성이 형성되는 시기이고 유아기에 형성한 회복탄력성 수준은 유아의 학습, 성장, 발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요인이기 때문에(Masten, 2001; Master & Powell, 2003),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회복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회복탄력성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그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유아의 회복탄력성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적변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유아의 회복탄력성에 상대적으로 높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긍정적 영향력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내용 및 방법 등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론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유아교육현장의 질적 향상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회복탄력성의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유아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유아의 자아존중감, 행복감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설명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유치원 2곳, 어린이집 3곳)에 재원 중인 만5세 유아 200명을 편의표집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유아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회복탄력성은 유아교사의 평정에 의하여 측정되었으며 경력 5년 이상을 가진 교사 8명이 참여하였다.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할 경우에는 윤리적 문제를 고려해야하므로(황해익, 2010) 연구목적, 기간, 방법을 기록한 가정통신문을 가정으로 발송한 뒤 부모가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의사를 밝힌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지를 인편 및 방문을 통하여 유아교육현장에 직접 배포한 후 방문을 통하여 회수를 실시함으로써 설문지 수거율을 높이고자 하였고, 전체 배포한 200부의 설문지 중 197부가 회수되어 98.5%의 회수율을 보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유아 197명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만5세 단일연령으로 구성된 학급형태인 유아가 139명으로 70.6%를 차지하였으며 성별은 남자 105명(53.3%), 여자 92명(46.7%)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N*=197)

변인	구분	사례수(*N*)	퍼센트(%)
학급형태	단일연령	139	70.6
	혼합연령	58	29.4
성별	남	105	53.3
	여	92	46.7

2. 연구도구

1) 유아 자아존중감 검사도구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살펴보기 위해서 Haltiwanger(1989)의 The Behavior Rating Scale for Presented Self-esteem in Young Children을 번안하여 타당화한 신동주와 최현미(2011)의 교사평정 유아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유아 자아존중감 척도는 3가지 하위영역으로 총 19문항으로 구성되며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가지 하위영역은 시작과 독립심 7문항, 학습성취 5문항, 사회정서성 7문항으로 구성된다. 시작과 독립심은 유아가 활동에 자신감을 가지는지와 목표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학습성취는 활동에 대하여 창의력, 이해력을 바탕으로 성취하고자 하는지와 과제이해능력을 알아보는 것, 사회정서성은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문항내용, 문항 수 및 신뢰도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자아존중감 검사도구의 하위요인별 문항 수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수	신뢰도(α)
시작과 독립심	7	.85
학습성취	5	.89
사회정서성	7	.78
전체	19	.92

2) 유아행복감 검사도구

유아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아행복척도(이은주, 2009)를 활용하였다. 유아행복척도는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행복에 대한 암묵적인 지식과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개발된 검사도구로, 교사가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을 관찰 한 뒤, 교사평정에 의한 방법으로 유아의 행복정도를 평가하는 관찰척도이다. 유아행복척도의 영역구성은 몰입 4문항, 건강 4문항, 영성 5문항, 또래관계 4문항, 교사관계 5문항, 인지 및 성취 5문항, 정서 4문항, 부모관계 3문항, 생활만족 2문항으로 9영역, 총 36문항으로 구성된다. 유아의 행복정도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행복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행복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수 및 신뢰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유아행복감 검사도구의 하위요인별 문항 수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신뢰도(α)
건강	유아가 건강한 생활태도와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이 조화를 이룬 측면을 의미	4	.88
몰입	유아가 외적 자극에도 불구하고 주의집중하고 지각하는 초점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	4	.86
영성	동요, 동화, 동시를 듣고 이해하기, 심미적 반응을 하는 정도, 예술적 감상을 통하여 심미감을 느끼고 심미적 경험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	5	.84
또래관계	또래로부터 사랑, 보호, 존경을 받고 있으며 사회에 소속되어져 있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을 의미	4	.92
교사관계	교사로부터 사랑, 보호, 존경을 받고 있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을 의미	5	.91
인지 및 성취	유아가 자신의 힘으로 바라는 결과를 성취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이 역경이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성취하는지를 의미	5	.89
정서	유아가 자신의 다양한 감정을 인식하고 상황과 요구에 맞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	4	.83
부모관계	부모의 지지에 따른 유아의 행복을 의미	3	.85
생활만족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활동하면서 갖는 전반적인 생활을 의미	2	.88
전체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	36	.95

3) 유아 회복탄력성 검사도구

유아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Hooper(2013)의 유아플로리시 척도 중 회복탄력성에 대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을 장애물을 피하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회복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 밝은 면을 발견하는 정도와 목표달성을 위해 인내심을 발휘하는 정도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10문항으로 구성된 회복탄력성 측정도구의 검사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이젠 값 1.0을 기준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2.58%의 설명량을 가지며 단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회복탄력성 척도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 회복탄력성을 측정한 결과 신뢰도는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설문제작, 예비조사, 본조사의 3가지 단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설문조사를 위하여 유아행복감,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관련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 심리측정관련 타당화 도구를 살펴본 뒤 이론고찰을 바탕으로 설문도구를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적절성 및 조사도구의 타당성, 문제점 및 소요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26일부터 2014년 7월 30일까지 5일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유아교사 5명 및 유아심리측정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유아교육전문가 3인에게 실시하여 측정가능성, 관찰가능성을 고려하여 문항으로 적절한지를 살펴보았으며 문항이 애매한 경우는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예비조사 후 완성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가 이루어진 기간은 2014년 8월 3일부터 2014년 8월 30일까지 4주간동안 유아 200명을 대상으로 유아교육기관 5곳(유치원 2곳, 어린이집 3곳)에서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연구목적을 설명한 뒤 연구참여에 응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지 배부가 이루어졌다. 측정에 앞서 설문지 양식의 표기방법 및 평정기준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뒤 평정이 이루어졌고 연구자가 유아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교사에게 평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언하는 과정을 통하여 관찰행동의 평정과정에 객관적인 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설문지 자료처리를 위하여 Window용 PASW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에서는 유아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회복탄력성은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는 유아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에서는 유아의 자아존중감, 행복감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과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는 유아의 자아존중감, 행복감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각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회복탄력성 인식 정도

유아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회복탄력성 인식 정도에 대한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한 결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회복탄력성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유아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회복탄력성 인식 정도 (N=197)

하위요인		평균(M)	표준편차(SD)
자아존중감	시작과 독립심	3.23	.49
	학습성취	2.77	.52
	사회정서성	2.86	.35
	자아존중감 총합	2.97	.37

유아행복	건강	3.77	.59
	몰입	3.57	.74
	영성	3.31	.72
	또래관계	3.62	.71
	교사관계	3.53	.64
	인지 및 성취	3.57	.80
	정서	3.49	.68
	부모관계	3.49	.65
	생활만족	3.84	.71
	유아행복 총합	3.55	.49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 총합	3.37	.54

<표 4>와 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 총합의 평균은 2.97(SD=.37)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시작과 독립심의 평균이 3.23(SD=.49)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정서성(M=2.86, SD=.35), 학습성취(M=2.77, SD=.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과제이행 및 창의성,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 보다는 활동에 도전하고 적극성을 보이며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특성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행복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유아행복 총합의 평균은 3.55(SD=.49)로 나타났고, 구체적인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생활만족(M=3.84, SD=.7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M=3.77, SD=.59), 또래관계(M=3.62, SD=.71), 인지 및 성취(M=3.57, SD=.8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영성(M=3.31, SD=.72), 정서(M=3.49, SD=.68), 부모관계(M=3.49, SD=.65)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유아의 행복 및 유아교육기관 생활만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동화, 음악감상, 아름다움을 통한 영성보다는 몸과 신체적 건강으로 인한 행복정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3.37(SD=.54)로 보통정도의 인식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

1) 유아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

유아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유아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관계 (N=197)

하위요인	자아존중감	행복감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1.00		
행복감	.78***	1.00	
회복탄력성	.65***	.77***	1.00

*** p<.001

<표 5>와 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관계 범위는 .65에서 .78로 나타났다(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상관관계 계수는 .78,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65, 행복감과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77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유아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회복탄력성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 (*N*=197)

하위요인	시작과 독립심	학습성취	사회정서성	자아존중감총합	회복탄력성
시작과 독립심	1.00				
학습성취	.65***	1.00			
사회정서성	.48***	.55***	1.00		
자아존중감 총합	.87***	.87***	.76***	1.00	
회복탄력성	.87**	.87**	.76**	.65***	1.00

** $p<.01$, *** $p<.001$

<표 6>과 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 범위는 .48에서 .87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01). 유아의 자아존중감 총합과 회복탄력성 총합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6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자아존중감 하위요인과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시작과 독립심과 회복탄력성(r=.87), 학습성취와 회복탄력성(r=.87), 사회정서성과 회복탄력성(r=.76)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는 유아의 독립심이 높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학습성취 정도가 높을수록,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정서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유아의 회복탄력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의 두 변인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유아의 행복감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

유아의 행복감과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제시된 <표 7>과 같이 유아의 행복감과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관계 범위는 .18에서 .77로 나타났다(p<.01). 유아 행복감 총합과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7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유아의 행복감과 회복탄력성 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 하위요인과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건강과 회복탄력성(r=.53), 몰입과 회복탄력성(r=.57), 영성과 회복탄력성(r=.45), 또래관계와 회복탄력성(r=.68), 교사관계와 회복탄력성(r=.54), 인지 및 성취와 회복탄력성(r=.53), 정서와 회복탄력성(r=.66), 부모관계와 회복탄력성(r=.31), 생활만족도와 회복탄력성(r=.56) 간에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가 건강하고 활동에 몰입을 더 잘하며 영성이 맑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으며, 인지 및 성취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고, 또래, 교사, 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정서를 인식하고 생활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7〉 유아의 행복감과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 (*N*=197)

하위요인	건강	몰입	영성	또래관계	교사관계	인지및성취	정서	부모관계	생활만족	유아행복감전체	회복탄력성
건강	1.00										
몰입	.33***	1.00									
영성	.26***	.41***	1.00								
또래관계	.51***	.37***	.39***	1.00							
교사관계	.38***	.36***	.53***	.57***	1.00						
인지및성취	.33***	.63***	.47***	.49***	.31***	1.00					
정서	.55***	.42***	.44***	.57***	.53***	.33***	1.00				
부모관계	.18**	.30***	.31***	.20**	.46***	.20**	.38***	1.00			
생활만족	.61***	.35***	.48***	.44***	.53***	.26***	.59***	.36***	1.00		
유아행복감전체	.63***	.69***	.73***	.74***	.75***	.71***	.75***	.51***	.68***	1.00	
회복탄력성	.53***	.57***	.46***	.68***	.54***	.53***	.66***	.31***	.56***	.77***	1.00

** p<.01, *** p<.001

3.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

1)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은 〈표 8〉과 같다.

〈표 8〉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 (*N*=197)

독립변수	*B*	*β*	*t*	R^2	R^2 의 변화량	*F*
(상수)	.16					
자아존중감 총합	.20	.14	2.47**	.60	.42	231.81***
행복감 총합	.73	.66	11.78***		.18	

** *p*<.01, *** *p*<.001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을 확인하기 전 투입한 변인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Durbin-Watson의 통계치는 1.73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8>과 같이 유아행복감 총합과 자아존중감 총합은 회복탄력성을 60% 정도 설명하며, 그 중에서도 자아존중감이 42%의 설명력을 가지며 여기에 행복감이 첨가할 경우에는 18%가 증가하여 60%의 설명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F값은 231.8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위의 회귀모형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은 유아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

유아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은 <표 9>와 같다.

<표 9> 유아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 (N=197)

독립변수	B	β	t	R^2	R^2 의 변화량	F
(상수)	.12					
사회정서성	.87	.57	12.27^{***}	.55	.50	186.15^{***}
학업성취	.27	.26	5.67^{**}		.05	

$^{**}p<.01$, $^{***}p<.001$

유아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을 확인하기 전 투입한 변인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Durbin-Watson의 통계치는 1.47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9>와 같이 사회정서성과 학업성취는 회복탄력성을 55% 정도 설명하며, 그 중에서도 사회정서성은 50%의 설명력을 가지며 사회정서성에 학업성취가 추가될 경우 5%가 증가하여 55%의 설명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F값은 186.1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위의 회귀모형식이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p<.001$).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유아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중 사회정서성과 학업성취는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정서성, 학업성취의 순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아의 행복감 하위요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

유아의 행복감 하위요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은 <표 10>과 같다.

유아의 행복감 하위요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을 확인하기 전 투입한 변인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Durbin-Watson의 통계치는 1.81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11과 같이 또래관계, 몰입, 정서, 생활만족, 인지 및 성취는 회복탄력성을 66% 정도 설명하며, 그 중에서도 또래관계는 46%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어 가장 설명력이 높은 하위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값은 116.0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위의 회귀모형식이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p<.001$).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유아 행복감의 하위요인 중 또래관계, 몰입, 정서, 생활만족, 인지 및 성취는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표 10〉 유아의 행복감 하위요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 (*N*=197)

독립변수	*B*	*β*	*t*	R^2	R^2 의 변화량	*F*
(상수)	.46					
또래관계	.26	.34	7.57***	.66	.46	116.06***
몰입	.16	.21	4.66***		.11	
정서	.20	.25	5.30***		.06	
생활만족	.12	.16	3.85***		.02	
인지 및 성취	.07	.10	2.17**		.01	

** $p<.01$, *** $p<.001$

4)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하위요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하위요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과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하위요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1단계는 유아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2단계에서는 유아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에 행복감의 하위요인이 추가될 경우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떤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모형별 변인을 하나씩 투입하여 독립변인의 상대적 효과를 살펴보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므로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모형1로 선정하였으며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동시에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과정을 모형2로 하였다. 모형1과 모형2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하여 유아의 행복감이 모형2에서 추가로 투입될 경우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제시하면 〈표 11〉과 같다.

모형1은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변수로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을 투입하여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설명력은 54.5%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F값을 살펴보면 125.48로,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중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습성취(t=4.48), 사회정서성(t=12.59)은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p<.001$). 이는 유아교사의 학업성취와 사회 정서성 정도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2는 행복감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추가하여 투입함으로써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하위요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모형1에 행복감 하위요인이 추가되었을 경우, 14%가 증가하여 총 68.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F값을 살펴보면 55.29로,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행복감이 동시에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학습성취(t=2.76), 사회정서성(t=4.64), 몰입(t=4.58), 또래관계(t=5.82), 정서(t=2.41), 생활만족(t=2.17)이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는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하위요인 중 학습성취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정서성과 정서정도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원만할수록, 몰입경

험 정도가 높을수록, 생활에 만족할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마음의 근력인 회복탄력성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하위요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 : 위계적 회귀분석

(*N*=197)

단계	독립변수	*B*	*β*	*t*	R^2	R^2 의 변화량	*F*
모형1	(상수)	.12			.545		125.48***
	시작과 독립심	.01	.01	.14			
	학습성취	.25	.25	4.48***			
	사회정서성	.88	.57	12.69***			
모형2	(상수)	-.01			.685	.140***	55.29***
	시작과 독립심	-.05	-.04	-.89			
	학습성취	.15	.15	2.76**			
	사회정서성	.37	.24	4.64***			
	건강	.04	.04	1.96			
	몰입	.14	.20	4.58***			
	영성	-.01	-.01	-.02			
	또래관계	.22	.29	5.82***			
	교사관계	-.03	-.03	-.60			
	인지 및 성취	.01	-.01	-.01			
	정서	.10	.13	2.41**			
	부모관계	.02	.02	.62			
	생활만족	.07	.09	2.17**			

** $p<.01$, *** $p<.001$

둘째,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하위요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항을 첨가해가면서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는 것으로 통계값이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유의미한 하위요인만 결과값으로 제시되므로, 단계적 회귀분석은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하위요인 중 회복탄력성을 설명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를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따라서 단계적 회귀분석은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하위요인 중에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며 새로운 변수가 추가될 때 마다 기존의 독립변수의 중요도를 발견할 수 있다.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하위요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유아의 행복감 하위요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을 확인하기 전 투입한 변인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Durbin-Watson의 통계치는 1.81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본가정을 충족하였다. 〈표 12〉와 같이 또래관계, 몰입, 정서, 생활만족, 인지 및 성취는 회복탄력성을 66% 정도 설명하며, 그 중에서도 또래관계는 46%의 설명력을 가지며 가장 설명력이 높은 하위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값은 116.0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

데, 이는 위의 회귀모형식이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p<.001).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유아 행복감의 하위요인 중 또래관계, 몰입, 정서, 생활만족, 인지 및 성취는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표 12〉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하위요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 : 단계적 회귀분석

(*N*=197)

독립변수	*B*	β	*t*	R^2	R^2 의 변화량	*F*
(상수)	.46					
또래관계	.26	.34	7.57***	.66	.46	116.06***
몰입	.16	.21	4.66***		.11	
정서	.20	.25	5.30***		.06	
생활만족	.12	.16	3.85***		.02	
인지 및 성취	.07	.10	2.17**		.01	

** p<.01, *** p<.0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재원하고 있는 유아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회복탄력성의 관계와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회복탄력성의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평균 인식범위는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행복감과 회복탄력성에 대한 인식범위는 각각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선,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요인에 대한 인식정도는 시작과 독립심, 사회정서성, 학습성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유아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 정도가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현미와 신동주(2011)가 유아 자아존중감 평가척도를 타당화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 및 유아 자아존중감의 특성을 살펴본 연구(손해진, 2013; 최주애, 2012)와 유사한 인식정도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성취, 조화로운 관계, 목적의식을 높이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교육적 접근을 통하여 길러질 수 있음에 기반해 볼 때,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 확보 및 부모, 교사교육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유아와 상호작용을 하는 생태학적 환경에 의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데,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가진 기질, 어머니와의 애착, 유아와 교사의 관계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최주애, 2012; 최현미, 2013), 자아존중감이 높은 유아의 경우 기관적응력(박희숙, 이승은, 2007)이 높고 질적으로 높은 우정 정도를 유지(손해진, 2013)할 뿐만 아니라 대인불안(류승희, 안연경, 2005)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기반해 볼 때, 유아기의 자아존중감은 애착 및 초기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아의 행복감에 대한 인식정도를 살펴보면 생활만족, 건강, 또래관계, 인지 및 성취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하위 순으로는 영성, 정서, 부모관계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행복감에 대한 인식정도는 유아교육기관의 생활맥락에 기반하여 유아의 행복수준을 살펴본 것으로(이은주, 2009) 유아행복감척도를 타당화하는 과정에서 보고된 인식수준 및 숲 교육프로그램과 유아의 행복감관련 특성을 살펴본 연구(신지연, 김정현, 정이정, 2012; 최수경, 석주영, 박인전, 2013)에서 보고된 결과와 유사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 행복감의 경우에는 유아의 전반적인 신체적 건강과 생활에서의 만족도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으며, 부모와의 관계나 교사와의 관계보다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인식이 더 높았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본 조사의 연구대상이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발달특성상 또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정서, 영성과 같은 심적인 행복보다는 신체적 건강에서 유아가 행복을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신지연 등(2012)과 양명희와 김현정(2010)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실외에서의 활발한 신체적 활동이 유아의 행복감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게다가 만5세 유아가 인식한 행복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황해익, 김미진, 탁정화, 2013)에서도 유아들은 놀이상황,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상황, 집중을 하는 몰입의 경험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유아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살펴보면 보통 정도(3점 이상)의 인식정도를 보였다. 이는 Reivich와 Shatte(2003)가 제시한 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을 기준으로 유아에 맞게 재구성하여 회복탄력성을 측정한 연구(이지현, 2012; 이연희, 2013)와 유사한 인식수준을 보였다. 유아의 회복탄력성을 살펴본 Hooper(2013/2012)는 좌절상황에서 벗어나 재도전의 기회를 구축하며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아들은 회복탄력성을 활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회복탄력성은 유아가 성장하고 성취를 경험하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목적을 의식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최성애, 2014) 자신이 잘하는 바가 무엇인지, 강점과 능력을 기반으로 현실상황을 고려하는 기반을 형성하는 능력으로 작용한다(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기반해 볼 때 유아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의 개발 보급 및 추후 유아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등을 탐구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유아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회복탄력성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자아존중감, 행복감, 회복탄력성은 제 변인간의 유의미한 정적상관 관계가 있었다. 즉, 유아가 독립적이거나 하고 싶은 일에 대하여 목적의식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정도가 높을수록, 학습성취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정서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회복탄력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하고 몰입, 영성, 인지 및 성취정도가 높고 또래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가 좋을수록 유아의 회복탄력성 정도가 높았다.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실행할 수 있다고 느낄수록 친구들과 쉽고 편하게 사귈 수 있다고 느낄수록, 어려움에서 극복하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가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심미감을 인식하고 감상하는 능력이 뛰어날수록, 자신의 성취에 대해 즐거

워하고, 또래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에서 행복하다고 지각할수록, 어려움에서 극복하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하위요인 중 유사한 하위변인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정서가 안정적이고 타인의 기분을 잘 알아차릴수록, 놀리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만족지연능력으로 측정된 행복감의 정서영역이 높을수록 자신을 긍정적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성, 눈마주침, 분노조절, 화해하기, 이타심, 친구관계 등으로 설명되는 자아존중감의 사회정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어려운 퍼즐맞추기, 발표하기, 혼자서 책읽기, 발표하기, 문제해결력으로 측정되는 인지 및 성취 관련 행복감 정도가 높을수록 학습을 즐기는 성향, 성취정도, 과제성공률, 이해력, 창의적 사고 등으로 측정되는 학습성취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유아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일상적인 생활을 행복하다고 느낄수록, 어떤 스트레스나 힘든 상황을 겪게 되더라도 이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상은 다르지만 행복감과 회복탄력성간의 상관관계를 밝힌 선행연구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이병임, 이희수, 류형선, 2012). 요인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과 회복탄력성간의 관계에서는 ‘시작과 독립심’과 ‘학습성취’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유아가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활동 및 과제를 이행하는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가질수록 회복탄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유아의 행복감의 하위영역과 회복탄력성간의 관계에서는 ‘또래관계’ 항목이 회복탄력성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유아의 경우, 기관 내에서의 많은 활동을 또래와 함께 하고 있으며, 교사관계나 부모관계에 비해서 또래관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유추하게 하며, 이 또래관계가 행복감에 대한 인식만이 아니라 회복탄력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인 ‘시작과 독립심’, ‘학습성취’ 및 행복감의 하위영역인 ‘또래관계’가 회복탄력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활동 진행방식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제시한다. 즉, 교사가 미리 계획한 교수- 학습 방법에 맞추어서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교사주도의 진행방식보다는 유아들에게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에 옮기게 하며, 혼자 활동하기보다는 또래들과 함께 선택한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며, 그 활동의 성과를 공유해 나가는 활동 진행방식이 유아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유아의 자아존중감, 행복감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회복탄력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느끼는 행복감이 스트레스나 힘든 상황을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하고 다시 적응해 나가려는 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자아존중감 또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회복탄력성은 비합리적인 사고를 극복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상황을 헤쳐나감과 동시에 어려움을 딛고 이겨냄, 적극적인 도전을 하는 특성을 가지므로(Reivich & Shatte, 2012) 유아가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긍정적 정서 및 지속적인 행복감이 긍정적인 심리기능을 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Hooper(2012/2013)는 회복탄력성의 효과를 유아가 불확실성을 회피하지 않고 좌절을 극복하여 일을 순조롭게 진행하게 돕는다고 제시하면서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유아는 현실을 직시하고 목적의식을 높이는 심리적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은 유아가 경험하는 좌절 및 스트레스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대처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행복의 지속성을 플로리시(flourish)의 입장으로 접근하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기반해 볼 때(Seligman, 2011) 유아기에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유아기부터 긍정적인 생활방식을 형성할 수 있으며, 행복의 전염가능성을 높여 교사, 부모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Ben-Shahar, 2007; Lyubomirsky, 2008).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이해 및 자아인식을 바탕으로 탈자아중심성이 길러지는 유아기에 형성되므로(최현미, 신동주, 2011)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유아들은 자신감이 높고 도전적인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는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의 긍정적인 상호영향력을 바탕으로 나타난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교육적 내용이 유아교육과정 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것을 익히고 배워나가는 유아기에 형성한 습관 및 생활태도형성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유아인성교육의 방향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유아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중 사회정서성과 학업 성취 항목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또래집단과 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회정서성과 유아가 가지고 있는 학습능력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행복감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또래관계, 정서, 몰입, 생활만족, 인지 및 성취의 순으로 회복탄력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복의 하위요인 중의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중에서 사회정서성의 경우는 모두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유아가 자신이 속해있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 및 타인과의 관계가 유아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또래와의 관계가 유아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또래와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복탄력성이 높은 경우 건설적인 방향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밝힌 이연희와 정재은(2012)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회복탄력성을 설명하며, 자아존중감에 행복감이 추가될 경우 두 가지 변인은 회복탄력성을 설명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심리적 근력을 가진 유아일수록 스스로의 자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높은 행복감을 가진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들어 행복감은 웰빙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Hone, Jarden, Schofield, & Duncan, 2014) 웰빙에 대한 접근을 긍정적 정서(positive emotion), 몰입(engagement), 긍정적 관계(relationship), 의미(meaning), 성취(accomplishment)의 5가지 구조로 측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근거해 볼 때, 가정에서 유아교육기관으로 유아의 생태적 환경이 동심원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또래관계의 행복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유아가 흥미있는 작업에 몰입을 하며 빠져있는 경험을 통한 행복은 회복탄력성이 가진 목표의식과 성취를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유아가 가진 몰입을 통한 내재적 행복은 활동에 몰입함에 있어 동기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소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위에 제시된 연구결과를 기초로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유아는 행복감이 높으며, 행복감이 높은 유아는 역경을 극복하는 잠재적 힘인 회복탄력성이 높으며, 회복탄력성이 높은 유아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 행복감, 회복탄력성 간에는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은 회복탄력성을 설명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복감이 회복탄력성을 설명하는 변량이 자아존중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해 볼 때 본 연구는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유아들이 스트레스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심리적 변인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성인이나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주로 연구되던 자아존중감, 행복감, 회복탄력성과 같은 긍정적 심리자원이 유아기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야하는 심리적 영역임을 제안함과 동시에 이를 높이기 위한 방안모색의 중요성을 피력하였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지 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를 바탕으로 유아의 자아존중감, 행복감이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 및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양적연구에 기반으로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변인의 상관관계 및 영향력이 나타난 구체적인 인과적 특성 및 현상학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심층면담, 관찰 등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에 기반을 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교사의 평정에 기반하여 유아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회복탄력성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교사평정을 실시하기 전, 교사에게 관찰척도 평정방법에 대한 논의 및 지속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나, 평정자의 엄격의 오류, 대비의 오류 등이 작용함으로써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 교사, 유아교육전문가 등 유아를 둘러싼 다양한 생태학적인 인적환경의 인식이 상호 일치하는지에 대한 연구 및 이들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변인 연구이므로 유아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활용방안을 제안함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자아존중감, 행복감, 회복탄력성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요인의 인과관계 및 각 변인을 구성하는 요인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의 행복감,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유아교육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각 요인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변인의 척도를 개발하여 타당화 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강남욱, 김장희 (2012). 아동의 회복탄력성, 스트레스 요인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간의 관계, **교류분석상담연구, 2**(2), 69-94.

강영하 (2012).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행복간의 관계. **학습전략중재연구, 3**(1), 107-123.

곽윤정, 강민수, 이지혜, 엄채윤 (2013). **내 아이의 강점지능.** 서울: 21세기북스.

구재선, 서은국 (2012). 행복은 4년 후 학업성취를 예측한다.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26**(2),

35-50
김경수, 김화경 (2011). 부모의 양육태도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19**(2), 143-170
김경희, 주현주 (2013). 아동의 회복탄력성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17**(3), 437-457.
김규수 (2002). 조기교육과 아이들의 삶. **생태유아교육연구, 1**(1), 29-47.
김미숙, 김종민 (2013). **학교교육 행복수준 지수 개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성숙 (2011). 유아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및 적용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6**(5), 473-493.
김소연 (2013). 유아특수교사의 회복탄력성 분석.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아영 (2014). 미래 교육의 핵심역량: 자기주도성. **교육심리연구, 28**(4), 593-617.
김은미, 최명구 (2007).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행복과의 관계. **아동교육, 16**(1), 155-171.
김정희, 이용주, 김동춘 (2014). 보육교사의 개인변인,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3), 103-120.
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서울; 위즈덤하우스.
류승희, 안연경 (2005). 유아의 대인불안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0**(3), 235-249.
문수경, 이무영, 박상희 (2009).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가족복지학, 14**(4), 137-153.
박영란, 이주리 (201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 및 자아존중감 안정성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2), 61-79.
박희숙, 이승은 (2007).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유치원 적응력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2**(6), 337-356.
백혜정, 김현신, 우남희 (2005). 조기사교육 경험이 있는 유아들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3,** 23-43.
손해진 (2013). 만5세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우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신동주, 최현미 (2011). 유아 자아존중감 평가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5**(6), 167-187.
신은경, 문혜련 (2013). 부모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유아의 자아탄력성.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3), 89-112.
신지연, 김정현, 정이정 (2012). '숲유치원 접근'의 유치원과 일반 유치원 유아의 기초체력 및 행복감 비교. **유아교육학논집, 16**(6), 5-25.
신지혜, 최혜순 (2014). 유아행복 과련 연구동향의 분석. **유아교육연구, 34**(1), 5-28.
신현숙 (2013). **전래놀이 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안도희, 김유리 (2012). 기대 및 가치 신념이 청소년의 학업 성취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3), 293-319.
양명희, 김현정 (2010). 원예 활동이 지체장애 아동의 자아 존중감, 행복감, 작업활동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논집 중복·지체부자유연구, 53**(1), 105-121.

유안진,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한국아동학회지, 17**(1), 173-188.

이미리 (2003). 청소년기 행복감 수준의 일상 맥락변화에 따른 다양성.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6**(4), 193-209.

이연희 (2013). 유아의 회복탄력성과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연희, 정재은 (2012).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유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문제연구, 30**(4), 245-268.

이영이, 노진숙, 윤영숙, 전은희 (2011). 초등교사의 낙관성과 정서조절양식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동서전신과학, 14**(1), 51-63.

이은주 (2009). 유아행복척도 개발연구: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지현 (2012). 만5세 유아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의 회복탄력성의 경향 및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한익 (2012). 초등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 성취정서, 학업성취도 및 주관적 안녕감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26**(4), 1001-1021.

최성애 (2014). **회복탄력성**. 서울: 해냄출판사.

최수경, 석주영, 박인전 (2013). 숲에서의 자유놀이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8**(2), 181-198.

최주애 (2012).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교사-유아관계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현미 (2013). 유아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구조모형 분석: 기질, 어머니와 애착, 유아-교사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3**(5), 67-87.

최현미, 신동주 (2012). 유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외적 변인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2**(1), 133-158.

탁정화 (2015). 유아교사의 교수몰입과 행복플로리시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3), 235-264.

탁정화, 강현미 (2014).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4**(5), 31-52.

홍은자 (2001). 어머니 성취압력과 학원·학습지 이용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황해익, 김미진, 탁정화 (2013). 만 5세 유아가 인식한 행복한 상황과 행복의 조건에 관한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12**(4), 93-122.

황해익, 탁정화, 강현미 (2014).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 인식수준에 따른 소진과 자아존중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9**(4), 31-52.

Ben-Shahar, T. (2007). *Happier: Learn the secrets to daily joy and lasting fulfillment.* McGraw-Hill.

Block, J. G., & Kremen, A, M. (1986). IQ and ego 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Haltiwanger, J. (1989). Behavioral referents of presented self-esteem in young children.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Kansas City, MO.

Harter. S. (2015).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and developmental science: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ew Jersey : John Wiley & Sons, Inc.

Hone, L. C., Jarden, A., Schofield, G. M., & Duncan, S. (2014). Measuring flourishing: The impact of operational definitions on the prevalence of high levels of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Wellbeing, 4*(1), 62-90.

Hooper, J. (2013). **아이의 플로리시**(우문식, 이명원, 허현자 역). 서울: 물푸레. (원저 2012년 출판).

Lyubomirsky, S. (2012).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 (오혜경 역). 서울: 지식노마드. (원저 2008년 출판).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 227-238.

Mastes, A. S., & Powell, J. L. (2003). A resilience framework for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Contributions from Project Competence. In S. S. Luthar(Ed.), *Resilience and vulnerability: Adaptation in the context of childhood adversities*(pp 1-28).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Miller, C. A., & Frisch, M. (2015).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우문식, 박선령 역). 서울: 물푸레. (원저 2009년 출판).

Pleux, D. (2012). **아이의 회복탄력성**(박주영 역). 서울: 글담. (원저 2012년 출판).

Reivich, K., & Shatte, A. (2012). 절대회복력. (우문식, 운상운 역). 서울: 물푸레. (원저 2003년 출판).

Schwarzer, R., & Nina, K. (2007). Functional roles of social support within the stress and coping proces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over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2*(4), 243-252.

Seligman, M. (2011).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NY: Free press.

Zimmerman, B. J., & Schunk, D. H. (2011). *Handbook of self-regulation of learning and performance*. New York: Routled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variables of young children related to self-esteem and happiness on their resilience from multidimensional perspective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200 young children who spend daily lif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located in Busan.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young children's awareness about their self-esteem was below average, but the level of their awareness about their happiness and resilience was above average.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their total self-esteem scores, total happiness scores and total resilience scores. Third, the self-esteem and happiness of the young children exerte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ir resilience. Among the subfactors of happiness and self-esteem had the largest impact on resilience.

▶*Key Words : self-esteem, happiness, resilience, young children*

논 문 투 고 2015. 04. 15.
수정원고접수 2015. 07. 15.
최종게재결정 2015. 07. 25.